

## 岐路에 선 美 군수산업... 自救策 강구에 안간힘

**동서** 대립의 냉전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안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의 대규모 군수산업체들은 수출부진과 미국정부의 국방비삭감 등에 부딪혀 종업원들의 대량해고를 계속하는등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21일 美의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군수산업의 퇴조로 인해 실직하게 될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10년간 무려 2백5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미국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자구노력은 군수산업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卍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부분의 군수업체들은 군수산업에 활용되던 최첨단 기술을 민수산업으로 전환, 변신을 서두르는등 자구책 강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표** 적인 예가 록히드社로서, 연간 매출액이 1백억불에 이르던 군수산업의 비중을 현재 70%에서 '90년도 중반에는 60%로 낮출 계획으로 민수분야에의 접근을 꾀하고 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탈냉전의 침체속에서 첨단기술의 민수활용을 통한 변신과 자구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G.D 지상 시스템社의 M.A. 제작공정



미국 정부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수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록히드社는 스텔스 전투기와 트라이던트 미사일 등에 이용되던 방대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캘리포니아州 지역의 최첨단 군사기술과 고급 인력을 흡수, 새롭게 활용한다는 야심을 갖고 출범한 회사가 아메리곤社이다.

이 회사는 우주항공기술을 활용 '99년까지 실용적인 전기자동차를 대량 생산해낼 계획을 세우고 총 6백억불을 투자할 예정인데, 록히드社가 폐쇄한 버뱅크의 항공기 제작라인을 전기자동차 부품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90년 이후 1만여명의 종업원을 감축한 M.D社를 비롯한 군수업체들은 미국 중부에서 생명공학과 건강관리사업, 민간항공산업 등의 육성에 애를 쓰고 있다.

또한 텍사스州의 G.D社 등의 군수업체들도 토트워드市에 새로운 민수산업용공항 건설과 산업용 항공기 수리 및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F-14 전투기를 만드는 그루먼社는 7천여명의 종업원을 감축한 이후 전투기 조립과 엔진실험에 이용해온 해군비행장을 제트항공기 화물 공항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침체일로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최첨단 고급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각종 민수산업용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미국 군수산업의 자구책은 물론 미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수산업의 침체와 국방비 삭감 속에서도 국방예산 규모는 '93년 2천8백억불에 달하는 등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서 미국 군수산업체들에게는 놓치지 아까운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90년 독립국 연합의 무기판매 수입은 1백20억불에 이른다 사진은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Su-27機

## 독립국 연합(CIS), 외화획득 위해 무기수출에 총력

**독립국** 연합(CIS)이 무기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CIS소속의 각 공화국들이 외화획득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軍産복합체 책임자들에게 재래식 무기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舊소련의 무기들은 서방에 비해 값도 싸고 성능도 우수해, 中東지역을 포함한 제3세계권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제3세계 유출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도로 발달된 무기들이 제3세계권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역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세계적인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판매품목이 재래식 무기에 그치지 않고 핵물질이나 핵탄두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고(國庫)조성을 위해 우라늄 수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3세계의 핵무장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CIS**가 판매하는 무기의 최대 수요국은 中東의 아랍국가들과 서남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로서, 이란은 '80년대 이후 이

미 다량의 T-72전차와 미그기 등을 구입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핵탄재가 가능한 수호이 전략폭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도 경쟁적으로 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 루마니아 등도 이 구매그룹에 끼어있다.

또한 지난 3월초 중국을 방문했던 삼소노프 CIS군참모장은 중국에 Su-27 전투기 24대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구소련의 육·해·공군 및 방공 장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CIS 소속 각공화국들의 무기판매 수입은 모두 1백20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IS가 이처럼 무기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에 겪고 있는, CIS 각공화국들의 극심한 재정·물자부족을 채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기 판매가 외교적인 고려없이 계속될 경우, 지역적인 군사균형을 파괴해 크고 작은 지역분쟁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佛·獨 合作법인—Eurocopter 공식 출범



▲ 6인승 BO105 헬기



▲ Ecureuil AS 355

▼ Dauphin 헬기의 군용형인 AS 565 Panther. 수중음파탐지기와 어뢰를 장착할수 있다



프랑스의 Aerospatiale社가 70% 출자하고, 독일의 MBB社가 30% 투자한 佛·獨 합작법인인 Eurocopter International社가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이 설립된 이 합작 회사는 프랑스의 Aerospatiale과 독일 MBB의 헬기 담당부서가 결합하여 두회사에서 생산하던 다양한 기종의 판매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백대의 헬기 제작 주문을 받았고, 이 가운데 88%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헬기 수출업체의 정상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Eurocopter그룹은 6인승 輕헬기 AS350B Ecureuil로부터 6인승 BO105, 8인승 BK117, 14인승 Dauphin, 26인승 Super Puma, Gazelle에 이르기까지 복합소재를 사용한 최첨단기술로 모두 11가지의 기종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BO105와 Dauphin은 한국항공에서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고 있으며, 4월말경에는 최첨단 기술을 모두 결집한 AS 332 Super Puma가 도입될 예정이다.

헬기는 군사적으로 적절히 무장하기만 하면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보여줄수 있다.

예를들어 Aerospatiale의 「AM 39 Exocet」로 무장된 「Cougar」는 대함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수중음파탐지기와 어뢰를 장착한 「Panther」는 대잠수함작전도 수행할수 있다.

20미리 기관포를 장착한 輕무장헬기 「Gazelle」도 화력지원임무 수행시 「전차킬러」로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Fennec」 또한 대전차용으로 화력지원 임무를 위해 배치될수 있다.

전투헬기 부문의 5t급 무장헬기 「Tiger」는 대전차용과 전방화력지원 및 엄호용의 2기종으로 '90년대말 생산될 것이다.

또한 Eurocopter는 Agusta, Fokker와 공동으로 NATO의 차세대헬기인 9t급 해군용 헬기 NH90을 제작하여 탐색 및 구조용 목적으로 1998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용** 헬기 시장에서 Eurocopter는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민수용 헬기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BO 105와 Ecureuil은 경찰 업무집행용 헬기로, BK 117은 해변감시임무 수행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Dauphin II는 일본에서 소방업무수행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Super Puma와 Ecureuil은 독특한 물폭탄형(Water-bomber)헬기로 화재진압임무 수행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운용되고 있다.

Eurocopter는 Catic, 싱가포르 Aerospace와 공동으로 연락임무 혹은 개인업무 수행용으로 2t급 P120을 1996년에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Eurocopter는 지난해 세계 민간용 헬기의 총 주문량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다.

Eurocopter그룹은 매출액의 약 3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약 8천7백대의 헬기를 판매한 프랑스의 Aerospatiale과 약 1천6백대의 헬기를 판매한 독일의 MBB가 결합하여, 현재 1백20여개국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자료제공 : Aerospatiale 한국지사)



▲ 삼발 Ecureuil에서 파생된 AS 555 UN Fenec



▲ 군용 Super Puma인 Cougar AS 532



▲ 8인승 BK 117 다용도 헬기